# 아시아 불교유물, 뉴욕 경매 대거 출품

**53억 원 상당 불교미술품 3점**
**카슈미르 예술양식 관음보살상**
**11세기 조성 마하칼라상 '눈길'**
**통일신라시대 금동불도 출품**

박영빈 객원기자



소더비 가을 경매에서 주요 출품작으로 등장한 불교 유물들. 사진출처=더 밸류

아시아에서 조성된 다양한 불교유물들이 미국의 경매에 대거 출품됐다. 가을 경매시즌을 맞이하여 '아시아 위크 뉴욕' 으로 주제를 정한 주요 미술품 경매사들이 아시아 미술품들을 전시하면서 다양한 불교유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미술품 전문 온라인 매체인 '더 밸류' 는 지난 9월 19일, 소더비 경매에 출품된 3점의 불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경매에 등장한 불교유물들을 소개했다.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는 경매시즌을 맞이해 아시아 불교미술을 중심 주제로 한 '다르마 앤 탄트라(Dharma and Tantra)' 경매를 진행한다. 소더비 측은 주 출품작으로 11세기에 제작된 티베트 청동 관세음보살상, 16세기의 중국 금동 보장 마하칼라(寶帳 Mahakala)상, 12~13세기 티베트의 바즈라바라히(Vajravarahi) 만다라를 선보였다. 3개 작품은 현재 최저 낙찰 예상가만 총 370만 달러(한화 약 52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되어 미술계와 불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세음보살상은 카슈미르 예술양식을 따른 11세기 서부 티베트 불교예술의 걸작으로 이미 지난 2000년도 춘계경매에서 한 차례 출품된 바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또 12~13세기에 그려진 것을 추정되는 바즈라바라히 만다라는 시대에 비해 완벽한 상태로 역시 지난 2018년 프랑스 크리스티 경매에서 당시 한화 8억 3천만 원 가량에 낙찰된 것으로 화제를 끌었던 작품이다.

가장 주목 받는 작품은 11세기 중국에서 조성된 보장(報障) 마하칼라상으로 당시 티베트불교를 강력히 지원했던 명나라 제10대 황제 정덕제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이다. 특히 좌대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1514년에 당시 황실의 말을 관리했던 태감 오량(吳亮)의 발원으로 조성됐음이 확인돼 더욱 가치를 발하고 있다.

더 밸류는 "소더비가 이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한 것은 매우 뛰어난 선택"이라며 "오량은 당시 단순한 말을 관리한 내관이 아닌 군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재정문제를 담당했다. 보장 마하칼라가 당시 재산의 수호와 함께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으로 신앙되었기에 그 둘의 연관성은 매우 흥미롭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시기에 또 다른 내관의 발원으로 조성한 티베트 양식의 금동불이 현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 소장된 것으로 조사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동일 경매에는 당나라때 조성된 금동 대세지보살상과 요나라 때의 금동 가섭존자상이 함께 출품됐으며 높이 29cm 가량의 통일신라시대의 한국 금동여래입상과 한국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14세기 반가사유좌상도 출품됐다.

# 영미권에 불교 전한 1세대 티베트 노승 입적

**'게쎄 껠상갸초' 영국서 입적**
**전 세계 센터 1300개소 개설**
**큰스님업적 기리며 애도 물결**
**"교단 분열 일으켰다" 평가도**



NKT의 창설자로 해외불교계의 평가가 극명히 갈리는 게쎄 껠상갸초 스님.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영미권에 불교를 전한 1세대 스승으로 꼽히는 티베트 출신의 게쎄 껠상갸초 스님이 영국에서 입적했다. 세납 91세, 법랍 83세.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전 행보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9월 22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과 '트리사이클' 은 스님의 입적과 불자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지난 9월 17일, 스님이 창설한 티베트불교 교단인 '신 까담빠 전통(New Kadampa Tradition)' (이하 NKT)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입적사실을 발표했다. NKT측은 "스님께선 매우 평화롭게 입적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다" 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평소에 '그대들이 나의 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 이제 그 때가 우리에게 왔다. 스님이 뿌리신 평화와 희망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자비로운 소망이 성취 될 수 있도록 나아가자"며 입적한 껠상갸초 스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게쎄 껠상갸초 스님은 1931년 티베트에서 태어나 8세에 출가, 1959년 인도로 망명하여 남인도에 재건된 쎄라사원의 강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1977년 영국 북서부에 세워진 불교센터인 '만주쉬리 연구소' 의 상주법사로 부임했다. 이후 1979년 동일 센터를 완전히 인수하고, 1991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티베트불교 교단인 '신 까담빠 전통(New Kadampa Tradition)' (이하 NKT)을 창설했다 생전 영미권과 아시아에 1300개소 이상의 불교센터를 개설하고 영어로 된 25권의 불교저술을 남기는 등 서구에 티베트 불교를 전한 1세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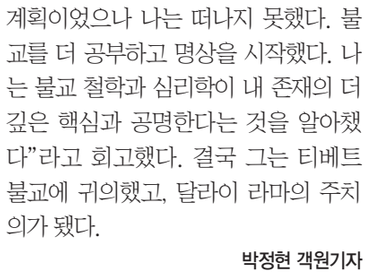
그러나 스님의 입적에 대해 해외 티베트불교 교단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NKT를 비롯해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단체와 교단들은 애도를 표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NKT의 창설로 인한 티베트 교단의 분열과, 도르제 슉댄(Dorje Shugden)문제로 알려진 티베트 불교 내의 갈등을 증폭시킨 중심인물이란 것이다.

스님의 부고를 전한 '트리사이클' 은 "껠상갸초 스님이 처음 서구권에 부임한 영국의 만주쉬리 연구소는 본래 대승불교유지재단(FPMT)이 영국에 불교를 전하는 거점으로 설립했던 곳이다. 그러나 FPMT 지도부와 불화를 일으켰고, 독단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FPMT와 분리됐다"고 덧붙였다.

껠상갸초 스님은 이후 1991년에 전통 교단과 완전히 갈라서 NKT를 창설하고 독자적인 교단체계를 운영하면서 분열을 일으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 스님과 NKT가 '도르제 슉댄' 이라는 호법신을 예경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서양인 불자는 스님의 부고에 대해 "불교를 서양에 전한 공로는 크지만, 그만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 인물임도 부정할 수 없다. 불교의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공보다는 과가 크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 달라이 라마 주치의 컬진 교수 번아웃 빠진 의료진 위한 이타행

**美서 비영리단체 'AIMI' 운영**



달라이라마 주치의 배리 컬진 교수. 사진제공=유대인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피로가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할 만큼 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이 육체적 ·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던 지난 2년. 팬데믹이 휩쓸고 간 후 의료 종사자들은 어떻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을까. 여전히 우울과 번아웃을 해소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마음은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

여기 의료 종사자들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 이타심을 실천하고 있는 한 비영리단체가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의 개인 의사인 가정의학과 교수 배리 컬진(Barry Kerzin)이 설립한 AIMI다.

영국 런던에 기반한 유대인 주간지 '유대인신문(jewishchronicle)' 은 9월 22일 피츠버그에 기반한 비영리단체로서 탈진과 우울증 등 의료 종사자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AIMI를 소개했다. 이 연구소에는 1만8000여명의 UPMC 간호사, 정부관리, 교육자 및 지역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컬진은 "코로나 대유행은 전 세계 사람들의 심리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며 "AIMI는 '감정위생' (emotional hygiene)뿐만 아니라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사람들의 행복과 관용,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정위생을 통해 분노를 관용으로, 질투심을 감사로, 자존심이나 오만함을 겸손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줄임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컬진이 AIMI를 설립한 것은 지난 수 년 간의 여행과 탐구의 결과다.

캘리포니아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컬진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를 졸업한 후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33년 전인 1989년께 인도에 머무는 동안 티베트 의사들의 연구를 도왔다.

그는 "당초엔 1년 만 티베트에 있을 계획이었으나 나는 떠나지 못했다. 불교를 더 공부하고 명상을 시작했다. 나는 불교 철학과 심리학이 내 존재의 더 깊은 핵심과 공명한다는 것을 알아챘다"라고 회고했다. 결국 그는 티베트 불교에 귀의했고, 달라이 라마의 주치의가 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 태국 NGO "비할랄제품 판매 확대하라"

**"불교인들 할랄 제품 비싸게 살 필요성 못 느껴"**



비할랄 제품 판매 확대를 외치는 태국 불교도들. 사진제공=더타이거

전 세계적으로 할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태국의 비영리단체가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에 할랄 라벨이 없는 제품을 파는 매대를 제공하라고 요청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태국 매체 '더타이거' (The Thiager)의 9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불교평화수호'(BPP)는 9월 20일 방콕 실롬로드에 위치한 CP타워 앞에서 "할랄 라벨로 인해 상품이 더 비싸진다"며 "할랄 라벨이 없는 제품을 따로 판매하라"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에 따르면 태국중앙이슬람위원회에서 승인한 16만개의 할랄 라벨 제품은 라벨이 없는 제품에 비해 더 비싸다.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도인 불교국가에서 같은 제품을 할랄 라벨이 붙었다고 해서 더 높은 가격에 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BPP의 대표인 프라팟 키트류디쿤(Praphat Kittiruedeekun)은 "할랄 라벨이 붙은 제품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불교도의 의무"라며 "할랄 라벨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를 검색하시면 상세 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02·720·9600 maumtour.com

한국인을 위한 2022년도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자비심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왕궁 앞에 있는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법회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최** | 여수 석천사 진옥(061-662-1607)

**문의 및 접수**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법회 동참 일정** (상세한 일정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C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성지순례15일 (11월 22일 출발 – 12월 6일 도착)
(동참금 3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 불교 7대 성지순례-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나란다 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

D 팀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성지 순례와 달라이라마 법문 11일 (11월19일 출발 – 29일 도착)
(동참금 309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그 옛날 실크로드 파미르고원으로 가는 길목이며 불상이 최초로 조성되고 불교가 번성하였던 간다라는 부처님 고행상으로 유명한 라호르박물관과 탁실라의 사원들 그리고 페샤와르까지 순례하고 달라이라마 법회에 참가하는 일정입니다.
11월19일 인천-델리-암라차르 / 20일 암리차르-파키스탄 라호르 /21일 라호르-탁실라 박물관,사원 순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바마드 / 22일 이슬라바마드-세계문화유산 탁티바히 사원-페샤와르-이슬라바마드 / 23일 이슬라바마드-라호르-암리차르 24일 암리차르-다람살라 25일-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7일 다람살라-행복한 계곡 따시종-캄툴린포체 사리탑 기도 및 법문-찬디가르 / 28일 찬디가르-델리 / 29일 인천공항 도착

